

송년기복합한 공연·전시 2주

김은희 무용단의 '산해경' 달오름 극장, 12월 30일

가는 해가 아쉽다. 하지만 속절없이 가는 세월을 어찌 누가 막겠는가. 얼마 남지 않는 2004년. 역동적 몸짓언어인 무용과 오방색 짙은 그림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한해를 마무리 하면 어떨까. 국립극장은 달오름극장에서 12월 30일 저녁 7시 30분 김은희 무용단의 무용극 '산해경(山海經)'을 무대에 올린다. 김은희 무용단은 국내무용계에서는 드물게 학연과 지연을 거부하고 춤에 대한 열정과 실력만으로 작품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단체이다. 중국의 경전인 <산해경>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작품은 김은희 무용단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동양적 감성 특히 불교적 사상이 내포된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이다. 무한한 자연에 비해 유한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했다. 역동적인 몸짓 속에는 탐욕도 번뇌도 다 날려버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실려 있다. 우리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수 밖에 없다는 진리가 극의 곳곳에 녹아 흐른다. 그래서 올 한해를 보내면서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다. 특히 숨막힐 듯한 격렬함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춤사위는 현대무용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희 씨의 안무 지도에 의해 손예란 양화정 이강미 박재원 이재준 장인선 등 6명의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02)2280-4115

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화가의 초상화 옆에는 '생전의 약속, 사후의 만남'이란 글 한 줄이 붙었다. 박생광은 '열반의 청담 대종사' '전분존' '명성왕후' 등 80년대에 그린 대표작 16점을, 사갈은 39년작 '굿모닝 파리' 등 114점을 벽에 걸어 놓았다. (051)740-4241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박생광과 사갈의 만남 부산시립미술관 (내년 2월 15일 까지)

탐욕 · 번뇌 날려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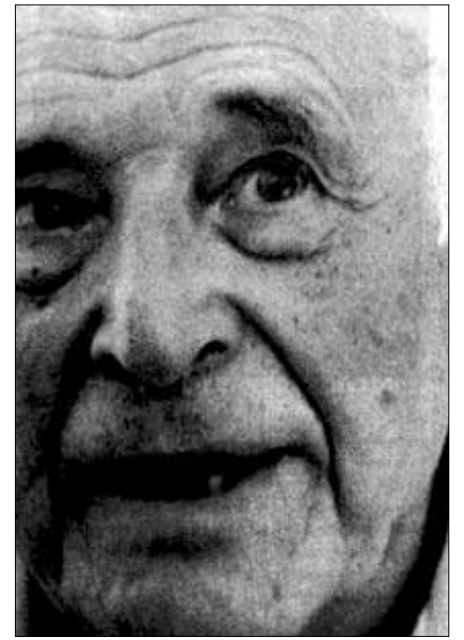
중국 경전을 모티브로 동양적 감성 · 불교사상 가득



역동적이고 빠른 춤사위가 관객들을 압도하는 김은희 무용단의 '산해경'.



박생광(1904~1985).



마르크 사갈(1887~1985).

두 색채 화가의 운명적 만남

생전 만나고 싶었던 두 사람 20년만에 작품으로 꿈 이뤄

“禪의 눈으로 발견하는 대동화엄”



『열린시학』겨울호 오현스님 시 조명 특집

승려사인 오현 스님(신승사 회주)의 시 세계가 집중 조명됐다. 시 전문지 <열린시학>이 최근 간행된 2004년 겨울호에서 오현 스님의 작품과 시세계를 조망한 평론을 실은 것. 1966년 시조문학의 추론으로 등단하여 78년 시조집 <심우도>를 낸 이후 <산에 사는 날에>(2000년)와 시화집 <절간 이야기>(2003년)등을 낸 오현스님의 시세계를 문예지가 다룬 것은 2001년 <불교문예> 여름호 이후 두 번째다. <열린시학>의 특집에 나선 평론가는 이선이(경희대) 교수와 김용희(명덕대) 교수, 문학평론가 이호씨 등. 이선이 교수는 “오현의 시는 삶의 도처에 깃들여 있는 불성을 포착함으로써 삼라만상이 장엄한 화엄생명의 실현임을 시적으로

증언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즉 “마음의 길과 세속의 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일원성을 시적으로 구현하는 도정에 놓여 있음”을 포착한 것. 이 교수는 오현 스님의 선적 인식이 “존재와 삶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열림의 언어를 지향”하고 있으며 “자기 부정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깊은 울림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교수도 “오현 스님의 시조와 시들은 해탈의 삶을 누리고 또 누리기 위한 창조적 언어 형식을 찾아가는 선의 취향을 드러낸다”는 점에 찬탄했다. 그래서 오현 스님의 시 세계를 불가적 시각으로 한정시켜 보는 시각을 거부하고 “불교적 관념의 도구를 내러놓고 시적 상상력과 인간 보편 존재에 대한 시인의식에 주목해야 한다”며 “거대한 존재의 휴식, 무로서의 순간적 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밀한 세계를 짚었다. 문학평론가 이호씨는 4성제 즉, 고집멸도의 주제를 통해 오현 스님의 시세계를 조망하며 “자유로움에서 펼쳐지는 대동화엄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임연태 기자

『직지(直指)』 문양 수놓은 여성성장 선보여



세계최고의 금수활자본인 『직지(直指)』의 문양을 새겨 넣은 손뜨개 여성성장(사진)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세일 주성대학교 학술지원팀장은 직지 활자를 창의적으로 형상화 해 수놓은 여성상 의와 치마를 개발 제작하고 12월 10일 열린 청주 서원대 주회 『직지와 자본』 학술대회에서 『직지문화상품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옷을 선보였다.

하얀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이 옷을 직접 입고 나와 발표한 이씨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양을 옷에 직접 수놓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며 “동양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패션 감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해 부담없이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머무와다래 3집 앨범 출시

노래하는 포교사 머무와다래(본명 김정안·52)가 찬불가요 3집 앨범을 출시했다. ‘우담바라’를 타이틀 곡으로 실은 이번 음반은 ‘석가여래 부처님’ ‘만다라’ ‘사바결음으로 가오리다’ ‘아미타 48대원’ 등 20곡이다. 이중 ‘우담바라’와 ‘우리모두 성불합시다’ ‘아미타 48대원’ ‘사바 결음으로 가오리다’ 등 네 곡은 머무와 다래가 직접 작곡한 신곡. 특히 ‘우담바라’는 3천년만에 한 번피는 우담바라의 꽃향기로 부처님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한편 머무와다래는 이번 앨범 출시를 기념하고 ‘천안 부처님 마을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내년 1월 보현 스님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1월 6일 영주 시민회관 △1월 8일 진주 문화예술회관 △1월 15일 부산 상공회소 대회의실 △1월 22일 진안 군민회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11)331-7199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옐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명)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기라-기원정사-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기아-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기라-기원정사-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기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기아-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해내 노폐물이 빠져도,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이 쌓이고 관절 사이 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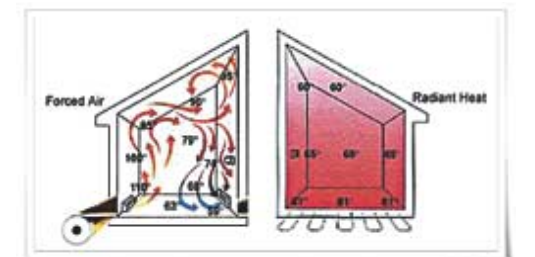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관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로 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원적외선 시찰 난방

원적외선 웰빙 난방으로 구도에 정진하세요!



특징

- 1. 원적외선 복사열로 바닥 내부의 공기까지도 보온의 따뜻함을 드립니다. 바닥이나 벽면의 기존시장을 손대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 2. 기밀값 대비 50% 가까이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3. 원적외선 난방으로 공기 탁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 4. 전자기파 없고 부분난방이 가능하며, 원시공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 5. 유지관리 비용과 A/S도 거의 불필요한 제품입니다.
- 6. 환경 친화적 소재이며 반영구적 수명의 차세대 난방 시스템입니다.
- 7. 불시 신속, 증축, 개축시 난방공사 상임 현업입니다.

설치장소

시찰, 포교원, 수련원, 기도원, 강당, 문화재관리실, 병영로, 맨션, 오피스텔, 아파트베란다, 기숙사, 고시원, 원동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음식점, 치료 및 입원실, 콘도미니엄하우스, 숙박실, 목욕탕, 전원주택...

시공처

통도사 백운암(병당, 요사채), 변산반도 월명암(병당, 정선 불암사(요사채), 대구 청계사(요사채),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수련원), 유교문화원, 서울 불광사(다영원), 북한산 삼봉사(주지실, 요사채, 공양실), 포천 장안사 천도교 서울 총구 수련원(서울문화회 36호), 기령 불광사(요사채)

고정월찬

MBC-TV 라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O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33층 3304호 H·P 011-719-9716 전화 02)538-8489, 551-3010, 2661-6711